



#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사순 제3주일 · 요셉성월  
제33권 14호(다해) 2013.3.3

## [묵상]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 <피에테르 데 그레베레, 1635년, 유채>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세계 곳곳에서 천재지변으로  
억울하게 변을 당한 사람들이  
살아남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는  
잘라버리시길 원하시는 하느님,  
회개의 표시로 열매를 원하시니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는 저희를  
올해만 그냥 놔두시는 것일지도.....

거름을 줘서 가꾸지 않고는  
무화과를 기대할 수 없듯  
열매 맺을 준비도 노력도 없이  
회개의 시기라고 외치기만 하며  
멸망에서 유예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멸망을 기다리는 자와 뭐가 다를까! -桓-

martinlee0501@hanmail.net

##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     |                              |                                |
|-----|------------------------------|--------------------------------|
| 수요일 | 저녁 미사                        | 오후 7:30                        |
| 목요일 | 저녁 미사                        | 오후 7:30                        |
| 금요일 | 아침 미사                        | 오전 8:30                        |
| 토요일 |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br>특전미사 (청년미사) | 오전 8:30<br>오후 7:00             |
| 주일  | 아침 미사<br>학생미사(영어)<br>낮 미사    | 오전 7:30<br>오전 9:30<br>오전 11:00 |

## 주간행사표

|     |                                                                                                                                                                                      |                                                                                                         |
|-----|--------------------------------------------------------------------------------------------------------------------------------------------------------------------------------------|---------------------------------------------------------------------------------------------------------|
| 수요일 |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br>레지오 마리아                                                                                                                                                           | 오후 2:00<br>오후 8:00                                                                                      |
| 목요일 | 성 시간 (첫목요일)<br>레지오 마리아<br>병자영성체(1째주)<br>예비자 교리반<br>성령기도회<br>울트레아(4째주)                                                                                                                | 저녁 미사후<br>오전 10:00<br>오전 10:00<br>오후 8:00<br>오후 8:00<br>오후 8:00                                         |
| 금요일 | 성경공부(그룹반)<br>M.E. Sharing(3째주)                                                                                                                                                       | 오전 9:30<br>오후 7:00                                                                                      |
| 토요일 |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br>소년 레지오 마리아<br>배론 청년모임                                                                                                                                             | 오후 6:00<br>오전 9:00<br>오후 6:00                                                                           |
| 주일  |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br>아도라떼 성가대<br>글로리아 성가대<br>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br>2째주 - 모임의 날<br>● 빈첸시오회<br>● 안나회/양업회, 성모회<br>자모회/대건회/원서회<br>● 꾸리아<br>3째주 - 모임의 날<br>● 요셉회 ● 제대회<br>-행사의 날<br>4째주 - 사목회 | 오전 중<br>오전 8:30<br>오전 9:00<br>오후 1:00<br>오전 9:30<br>오후 1:00<br>오후 1:45<br>오후 1:00<br>오후 1:00<br>오후 1:00 |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의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             |                                                                                                                                                                                                                                          |
|-------------|------------------------------------------------------------------------------------------------------------------------------------------------------------------------------------------------------------------------------------------|
| 토 요         | (연)권순봉 요안나                                                                                                                                                                                                                               |
| 특전미사        | (생)                                                                                                                                                                                                                                      |
| 주 일<br>낮 미사 | (연)이용식 베드로, 서해수 마리아,<br>김금점 모니카, 이경용 야고보,<br>이현호 요한, 김풍길 바오로,<br>고준희 제임스, 전시웅 요한,<br>김재순 아가다, 신임순 안나, 조남각 요셉<br><br>(생)이윤조 클라라,<br>문충한 에드워드 & 문지숙 엘리사벳,<br>김길홍 치릴로, 이근모 마리오,<br>이종원 베드로 & 이린다 아네스 가정,<br>유현화 리디아, 정경모 데레사,<br>하버/카슨구역 가정 |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탈출기(Exodus) 3,1-8 7ㄷ.13-15

화답송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주님은 정의를 펼치시고, 억눌린 이 모두에게  
공정을 베푸시네. 당신의 길을 모세에게,  
당신의 업적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하늘이 땅위에 드높은 것처럼, 당신을  
경의하는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네.○

제 2독서 코린토 1서(1 Corinthians) 10,1-6.10-12

복 음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 음 루카(Luke) 13,1-9

영성체송 주님, 당신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시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오늘의 성가

|    | 청년미사(특전)       | 아침 미사 | 낮 미사 |
|----|----------------|-------|------|
| 입당 | 150            | 151   | 151  |
| 봉헌 | 377            | 255   | 269  |
| 성체 | Refiner's Fire | 298   | 279  |
| 파견 | 153            | 155   | 103  |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제2부 교회 안의 말씀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요한 1,12)

전례, 하느님 말씀의 특전적 장소

교회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

성경을 기도하며 읽는 것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성경은 과거에 속한 책이 아닙니다. 그 주체, 곧 하느님께 영감을 받은 하느님의 백성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따라서 말씀은 언제나 살아 있는 주체 안에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친교 안에서, 곧 첫 교부들로부터 오늘날의 성인들까지, 오늘의 교도권까지 이르는 말씀의 모든 위대한 증인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성경을 읽기 위한 탁월한 장소는 전례, 특히 성찬례입니다. 그 안에서, 성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 자체께서 현존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며 성경을 읽는 것은 언제나 성찬례 거행과의 연결 속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체 조배가 성찬 전례를 준비하고 동반하고 뒤따르듯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며 성경을 읽는 것은 교회가 전례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며 거행하는 것을 동반하고 심화시킵니다. 독서와 전례를 이렇게 긴밀히 연결시킴으로써 우리는 하느님 백성의 사목과 영성 생활에서 이 독서를 인도해야 할 기준들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87).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이전과 회의 동안에 나온 문헌들에서는, 신앙으로 성경에 접근하는 여러 가지 풍요로운 방법들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많이 주의를 기울인 것은 “신앙인들에게는 하느님 말씀의 보고가 열리고, 그렇게 해서 살아있는 하느님 말씀이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하는 거룩한 독서였습니다.

여기에서 그 기본 단계들을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거룩한 독서는 본문을 읽는 것(lectio)으로 시작되고, 그것은 그 의미를 참으로 이해하려는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성경 본문은 그 자체로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순간이 없다면, 본문은 우리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맙니다. 다음으로는 묵상(meditatio)이 뒤따르는데, 여기에서는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묻습니다. 여기에서는 각자가 개인적으로, 그러나 공동체로서도 움직여지고 의문에 부쳐져야 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발설된 말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말씀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기도(oratio)의 순간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그분께 무엇을 말씀드리는가?’라는 질문을 전제합니다. <◆계속>



## 돌아오라, 집으로!

사순 시기가 되면 '회개'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구약의 예언자들도 한목소리로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회개란 '악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처럼 집을 떠나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정신 차리고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루카 15,11-32 참조)

하느님 아버지의 품은 우리 모두의 영적 고향입니다. 명절 때면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교통 체증을 감수하면서도 고향을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향은 부모님이 계신 곳이고, 부모님의 품은 푸근하고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고향인 하느님의 품은 상상을 넘어설 만큼 따뜻하고 푸근합니다.

제1독서가 말해주듯이 하느님은 당신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시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분, 그들이 겪는 고통을 아시고 그들을 구하러 내려오시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하느님은 우리의 아픔을 속속들이 잘 아시고 감싸 안아주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품 안에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란 말이 있듯이 하느님의 품을 벗어나 마음 내키는 대로 살다 보면 결국 고생길로 접어들어집니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곳에 가서 제멋대로 살았지만, 그 끝은 지독한 고생이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이런 잘못된 길로 빠져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십니다. "너 회개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하느님의 품 안에 머물면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좁은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1요한 3,20)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주 한정된 생각의 틀에 하느님을 고정시켜 놓고 이런 저런 기대를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투덜거립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제2독서) 어머니가 어린아이에게 주려고 사과를 깎는데, 아이는 사과보다는 사과를 깎는 칼이 신기해서 그것을 달라고 떼를 쓰기도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도 잘못된 생각에서 하느님께 그릇된 기대를 하면서 떼를 쓰기 일쑤입니다.

좁은 생각의 틀을 넘어서면 하느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마태 7,11 참조)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나의 길에 험한 산을 치워주시지는 않지만 그 산을 넘어갈 힘을 주시는 분, 내 앞에 걸림돌을 제거해주시지는 않지만 그것을 내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시는 분입니다. 하느님은 진정 든든한 아버지이시고, 그분의 품은 참된 고향입니다.

1990년대 후반, 최고의 아이돌 그룹의 노래 'Come Back Home(돌아오라, 집으로)'가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 노래를 듣고 집으로 돌아온 가출 청소년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느님은 영적으로 가출 청소년과 같은 우리를 애타게 부르십니다. "내 아들 딸들아, 돌아오너라, 집으로!"

◆손희송 베네딕토 신부 / 서울대교구 사목국장

### 나 역시

속마음 몰라준다 섭섭해 말아야지. 난들 이해만했었다. 왜 내가 싫은 걸까 서운해 말아야지. 난들 좋아만했었다. 인정받지 못한다 좌절 말아야지. 나라고 존중만했던가. 이기적이다 불평 말아야지. 난들 내가 먼저 아니었던 적 있었나. 나와 다르다고 목청 높이지 말아야지.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니까. ◆이영 아녜스 / 수필가

### 이번주 전례봉사가

| 이번 주  | 토요특전<br>(청년미사) | 아침 미사        | 낮 미사          |
|-------|----------------|--------------|---------------|
| 해설자   | 최보나<br>보나      | 신덕레<br>테레사   | 이진향<br>아녜스    |
| 제1독서자 | 박민환<br>미카엘     | 송현식<br>바오로   | 모은기<br>다두     |
| 제2독서자 | 이은지<br>수산나     | 정광미<br>프란체스카 | 정명모<br>마리아    |
| 제물봉헌자 |                |              | 하버/카슨<br>1,2반 |

### 다음주 전례봉사가

| 다음 주  | 토요특전<br>(청년미사) | 아침 미사       | 낮 미사        |
|-------|----------------|-------------|-------------|
| 해설자   | 이은지<br>수산나     | 권순길<br>체칠리아 | 정미영<br>미카엘라 |
| 제1독서자 | 박민환<br>미카엘     | 이민상<br>요한   | 유철희<br>바오로  |
| 제2독서자 | 곽수진<br>보나      | 이순자<br>비비안나 | 유현자<br>안나   |
| 제물봉헌자 |                |             | 토런스<br>서 2반 |



- ◆ 교부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오늘 주일(3일, 매달 첫째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헌금이 있습니다.

### 十 사순시기 十

- ◆ 사순절 전신자 십자가의 길...금요일 저녁미사(7:30) 후 사순시기중 금요일 아침미사가 오후 7시30분으로 변경되며, 미사후 '십자가의 길' 기도가 구역순으로 진행됩니다.
  - 사순 제3주일(3월8일 금) : 토런스 남구역
  - 사순 제4주일(3월15일 금) : 토런스 북구역
  - 사순 제5주일(3월22일 금) : 하버/카슨 구역
  - 성 금요일(3월29일) : P.V. 구역(오후 3시 야외 14처)
- ◆ 사순절 희생 애공봉투가 준비되었습니다.
  - 우리 가족의 희생, 극기, 보속, 선행으로 모아진 성금을 하느님 대전에 정성껏 봉헌합니다. 애공봉투는 주님 만찬 성목요일(3월28일) 미사 중에 봉헌합니다.
- ◆ 부활 합동 판공성사 : 3월19일(화)
  - 참회예절 : 오후 7시30분
  - 고해성사 : 오후 8시부터(주일학교 성사일정 같음)
  - 사순시기 중 드리는 고해성사는 판공성사입니다. 미사전 고해성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동보속 : ①십자가의 길 ②자선1회 ③주모경1회 ④평일미사참석 ⑤선행1회. 이상 다섯가지중 3가지 이상 실행하십시오.

### ◆ 3월 봉성체와 성시간

- 봉성체 : 3월7일(목) 오전 10시
- 성시간 : 3월7일(목) 저녁미사와 함께

### ◆ 3월10일(주일)부터 서머타임 시작

10일(주일) 새벽 2시를 3시로 옮겨놓으십시오. 평소보다 1시간 빨리 일어나야하는 셈입니다. (미사시간에 늦지 않습니다.)

### ◆ 수요일 평일미사 시간 임시 변경

본당신부님께서 부활 판공성사관계로 타성당으로 출장 가십니다. 수요일 평일 저녁미사(3월13일, 20일)가 아침 8시30

분으로 임시 변경되오니 착오없이 바랍니다.

### ◆ 부활절 앞두고 전신자 본당 대청소 실시

3월31일 부활대축일을 앞두고 성전 안팎과 2층교실, 화장실, 친교장, 부엌, 정원, 축구장 등 본당 시설물 구석구석을 대청소합니다.

- 일시 : 3월24일(성지주일) 낮미사 마치고 점심식사 후.
- 청소 담당구역 : 구역 반 배정
- 문의 : 박혜경 레나타 소공동체부장 ☎(310)808-5005

### ◆ 성경공부(Lectio Divina)반 시작했습니다.

- 일시 : 매주 금요일 오전 9시30분
- 장소 : 2층교실(동남쪽) \* 지도 : 오마우라 수녀

### ◆ 성월봉사자 대상 재교육 실시

- 일시 : 3월3일(주일), 오후 1시30분

### ◆ 남미 불우이웃 돕기 옷, 담요, 신발 수거합니다.

- 수집일자 : 3월10일(주일)까지 배식대옆 방
- 헌옷과 담요는 깨끗이 손질해서 보내주세요.
- 문의 : 박홍룡 빈첸시오회장 ☎(310)283-5879

### ◆ 전신자 대상 사순 피정 오늘 마무리

지난 3월1일(금)부터 시작한 전신자대상 사순피정이 오늘 끝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주제로 한국 예수고난회에서 오신 오성균 요셉 신부님께서 사흘간 지도해주셨습니다. 신부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피정에 참여한 신자여러분에게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故이용식 베드로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본당 사목회 부회장을 지내시고 사목회 감사로 봉사중이시던 이용식 베드로님(토런스 북구역,이복임 엘리사벳님의 남편)께서 2월28일 선종하셨습니다. 연도와 부인은 오늘주일(3일) 낮미사후 점심식사 마치고, 장례미사는 4일(월) 오전 10시 성전에서 있습니다.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3월3일(주일) : 소공동체(떡, 김밥 \$4)  
주일학교(8학년 하이라이스)
- 3월10일(주일) : 안나회(우거지콩나물국밥 무료제공)  
주일학교(7학년 파스타)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                 |     |     |     |     |     |     |                                                             |              |     |     |     |     |     |  |
|-----------------|-----|-----|-----|-----|-----|-----|-------------------------------------------------------------|--------------|-----|-----|-----|-----|-----|--|
| 교부금             | 강태홍 | 고천용 | 김광자 | 김교복 | 김성택 | 김영길 | 성전헌금                                                        | 강태홍          | 고천용 | 김광자 | 김교복 | 김영길 | 김정엽 |  |
|                 | 김정엽 | 김준호 | 노찬술 | 박기돈 | 박완철 | 박현주 |                                                             | 김준호          | 노찬술 | 박완철 | 박현주 | 서성용 | 안재만 |  |
|                 | 서성용 | 안재만 | 엄세중 | 엄영희 | 오세원 | 오수인 |                                                             | 엄세중          | 오세원 | 오수인 | 원건희 | 유영균 | 유철희 |  |
|                 | 오신재 | 원건희 | 유근태 | 유영균 | 유철희 | 유희연 |                                                             | 유희연          | 윤희동 | 이병우 | 이석제 | 이숙화 | 이일량 |  |
|                 | 육근주 | 윤희동 | 이병우 | 이석제 | 이숙화 | 이일량 |                                                             | 이효세          | 조준제 | 최원석 | 최이원 | 최진수 | 최태훈 |  |
|                 | 이재철 | 이효세 | 장영진 | 정남형 | 조준제 | 주영석 |                                                             | 한창주          | 홍석인 | 제대회 |     |     |     |  |
|                 | 최원석 | 최이원 | 최진수 | 최태훈 | 한금순 | 한창주 |                                                             |              |     |     |     |     |     |  |
|                 | 홍석인 |     |     |     |     |     |                                                             |              |     |     |     |     |     |  |
| 합계 : \$5,110    |     |     |     |     |     |     |                                                             | 합계 : \$4,560 |     |     |     |     |     |  |
| 주일미사헌금: \$2,984 |     |     |     |     |     |     | 감사헌금 : 조준제                      주보/달력 광고후원 : \$700 (감사합니다.) |              |     |     |     |     |     |  |



## 공지사항

### ◆ 주일학교 '십자가의 길'(야외14처) 스케줄

오늘 주일(24일)부터 오전 10시30분 주일학교 교리공부 시간 중에 '십자가의길' 기도를 성모동산 야외14처에서 진행합니다.

- \* 3월3일 : 9,10학년 \* 10일 : 3,4,5학년
- \* 17일 : 6,7,8학년 \* 24일 : 유치부,1,2학년

### ◆ 중등부(주일학교) 사순피정

- 일시 : 3월8일(금)~9일(토) 장소 백삼위성당
- 대상 : 6학년~8학년 참가비 없음
- 준비물 : 성경, 목주, 슬리핑백, 재킷, 세면도구, 학교티셔츠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행사담당 교사 ☎(310)709-3343

### ◆ 고등부 사순피정

- 일시 : 3월15일(금)~17일(주일)
- 장소 : 꽃동네 피정의집(테베쿨라)
- 대상 : 9학년~12학년
- 준비물 : 성경,목주,미사현금,슬리핑백,재킷,세면도구, 주일학교티셔츠

###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8학년~12학년
- 일시 : 7월26일(금)~28일(주일)
- 문의 : 황선홍 그레고리오 그룹리더 ☎(424)903-6637

### ◆ 한국학교 교사를 초빙합니다.

- 한국 또는 미국 대학졸업하신분
- 한국학교 관련 연수에 참석할 수 있는 분
-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칠 수 있는 분
- 문의 : 한국학교장 김화경 스틸라 ☎(310)464-7490

### ◆ 성전 안에 음식물과 음료수를 들여가지 마십시오.

미사 또는 특강, 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갈 때 먹던 음식이나 음료수를 들여갈 수 없습니다.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가주 소식

### ◆ 자마이카 선교여행 참가자 모집(Mission Trip to Jamaica) "가난한 이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배우자"

- 일정 : 5월4일(토)~12일(주일)까지
- 지도신부 : 이유진 신부(순교자성당 주임신부)
- 참가비 : \$700(항공료만 부담)
- 신청 : 3월10일까지(준비모임 매주 일요일 7:30pm)
- 문의 : 순교자성당 사무실 ☎(714)897-6510

### ◆ Food Bank에서 여러가지 식품을 제공합니다.

- 장소 : 가디나 아시안 커뮤니티센터(14112 Kingsley Dr.)
- 오전 9시~낮 12시(신분증 지참하고 오세요.)
- 구인 : 55세이상 파트타임(주30시간)
- 문의 : 조소영 수산나 ☎(310)804-7645

## 소공동체 3월 반모임 안내

|                                   |         |                          |                                 |              |
|-----------------------------------|---------|--------------------------|---------------------------------|--------------|
| 소공동체 부 장                          | 차 장     | 차 장                      |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              |
|                                   |         |                          |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명재 아가다               |              |
|                                   |         |                          | 이희경 크리스티나 김희연 루시아               |              |
| 구역/장                              | 번       | 반장                       | 장소/날짜                           |              |
| 토런스 동<br>김춘자<br>막달레나<br>539-3377  | 1       | 이순자 비비안나<br>213-675-0498 | 김양금 안나<br>3/9(토) 오후 7시          | 518-3041     |
|                                   | 2       | 김찬구 요한<br>701-6343       | 신중철 아브라함<br>3/9(토) 오후 7시        | 936-9202     |
|                                   | 3       | 문지숙 엘리사벳<br>854-9407     | 문지숙 엘리사벳<br>3/8(금) 십자가의길 기도후 성당 | 854-9407     |
| 토런스 서<br>장정진<br>베로니카<br>713-7779  | 1       | 이진향 아베스<br>989-0366      | 박동수 베드로<br>3/23(토) 오후 6시        | 218-7340     |
|                                   | 2       | 유선영 클라라<br>424-241-5988  | 박상원 야고보<br>3/16(토) 오후 6시        | 323-762-4101 |
|                                   | 3       | 신경희 클라라<br>424-903-5051  | 정광미 프란체스카<br>3/8(금) 오전 10시30분   | 617-1132     |
| 토런스 남<br>이희경<br>크리스티나<br>818-6903 | 1       | 오창애 안나<br>974-2857       | 오창애 안나<br>3/15(금) 십자가의길 후 성당    | 974-2857     |
|                                   | 2       | 박정람 마르시아<br>634-6923     | 김행선 올리아나<br>3/14(목) 오전 11시 성당   | 634-6923     |
|                                   | 3       | 전하현 마리아<br>213-550-6653  | 전하현 마리아<br>3/8(금) 십자가의길 기도후 성당  | 213-550-6653 |
| 토런스 북<br>최미열<br>클라라<br>895-8624   | 1       | 조화숙 안젤라<br>213-272-8393  | 서성용 베드로<br>3/11(월) 오후 7시        | 686-3587     |
|                                   | 2       | 1반과 같음                   | 1반과 같음                          |              |
| 하버 카슨<br>이정자<br>아그네스<br>784-0585  | 1/<br>2 | 주영애 켈마<br>818-640-3656   | 권태만 실베스텔<br>3/9(토) 오후 7시 성당     | 989-9077     |
|                                   | 3       | 이영희 카타리나<br>518-1736     | 이영희 카타리나                        | 518-1736     |
| P. V.<br>김명재<br>아가다<br>866-8778   | 1       | 남경희 베네딕다<br>384-3289     | 이영무 스테파노<br>3/8(금) 오후 7시        | 377-9989     |
|                                   | 2       | 김유미 크레센시아<br>482-9108    | 이재준 요한<br>3/9(토) 오후 7시          | 541-0765     |
|                                   | 3       | 박은혜 클라우디아<br>377-7063    | 박은혜 클라우디아<br>3/8(금) 저녁미사후 십자가의길 | 377-7063     |
|                                   | 4       | 이귀란 아베스<br>617-3568      | 박진숙 엘리사벳<br>3/12(화) 오전 10시30분   | 617-3568     |

### 이번 주 단체 모임

|             |  |
|-------------|--|
| 구역장 / 반장 모임 |  |
|-------------|--|

### 다음주 단체모임

|          |  |
|----------|--|
| 제단체모임의 날 |  |
|----------|--|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고통스런 수난을 피하고 다른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실 수는 없었나요?”**

이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어느 누가 죽음을 원하셨습니까? 생명이 추구하는 것은 기쁨과 행복이고, 그 생명을 지키고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은 우리 삶의 과제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신 후 인간에게 맡기며 잘 관리하기를 바라셨습니다.(창세 1,27-30 참조)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기만 하면 인간들에게는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그 특권은 박탈되었고 인간은 낙원에서 추방되었습니다. 낙원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만들어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할 인간은 그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생각해도 그 안타까움과 쓸쓸함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보실 때에는 어떠셨겠습니까?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인간 구원을 위해 위대한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을 내려주십니다.(탈출20,1-17 참조) 그것은 역사를 통해 하느님의 초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원의 신비입니다. 낙원으로 초대받을 수 있는 지침서인 율법을 받고도 인간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면서, 마시고 취하며 하느님을 외면합니다. 그럼에도 하느님께서는 당신 계명(율법)을 지키도록 수많은 예언자와 계시를 통해 계속 알려주고 가르쳐 주십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민족 역시 하느님이 주신 율법을 사랑하여 “그 문자뿐만이 아니라 정신까지도 전체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가톨릭교회교리서 579항)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는 지도자들에게 소중한 원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명의 근본정신은 퇴색되어 사라지고, 그 법은 인간을 옴아매는 또 다른 사슬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본성 속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그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하느님께서는 마지막 방법을 택하십니다. 당신께서 친히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손으로 일하시고, 인간의 정신으로 생각하시고, 인간의 의지로 행동하시고, 인간의 마음으로 사랑하시기까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470항 참조)

태초부터 준비하신 그 낙원에 초대하기 위해 하느님께서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하

느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만드셨습니다.”(2코린 5,21)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당신의 생명을 바치는 단 한번의 희생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하느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수난과 죽음까지도 겪게 하신 이유는 단 하나,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은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인간 구원의 길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겠다.”(요한 3,16)

◆서울대교구 사목국 연구실 / 가톨릭교회교리서 해설

**가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주님께로**

센키비치의 소설 ‘퀴바디스’에 나오는 장면을 기억한다. 박해를 피해 로마를 떠나 오스티아 항구로 향하던 베드로 사도는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예수님을 만나자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하고 묻는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고 대답하신다. 이 유명한 말은 로마 아피아가도에 있는 ‘퀴바디스 성당’ 벽면에 새겨져 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내 삶에 충실하지 못할 때 나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이 된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을 밟고 가던 발걸음을 되돌려 결국 로마에서 순교하였다.

구약의 성조들과 예언자들은 세상의 가르침에 따르기보다 하느님의 말씀에 더 매여 살았다. 사도들은 세상에 논리를 따르기보다 주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겼다. 그들은 자신의 뜻보다도 하느님의 계명과 가르침에 더 충실하였던 것이다. 사실 우리는 항상 많은 것에 매여 있다. 세상에 매여 있고 감각에 매여 있고, 현재와 미래의 여러 걱정거리에도 매여 있다.

게다가 우리는 쉽게 나태해지고 쉽게 타성에 젖기도 한다. 좋은 길을 가다가 나쁜 길에 들어서기도 하고, 바른 삶을 살다가도 그릇된 길에 빠지기도 한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악이 악인 줄도 모른 채 무뎠진 양심으로 살아가기도 한다. 그런 우리에게 복음은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 일상의 틀에서 벗어나 신앙이 주는 복된 시간 안에 머무르라고 한다. 피정은 일종의 그런 요청이고, 사순절은 일종의 그런 시기이다.

사순절은 우리 마음의 회개와 생활의 변화를 촉구한다. 특별히 내 신앙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새 결심을 하게 한다. 신앙은 이처럼 회심을 요구하고 쇠신을 지향한다.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게 한다. 그리고 돌아서게 한다.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신앙을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신앙은 가벼운 말보다도 깊이 있는 실천을 더 요구한다. 회개하지 않는 삶은 멸망이라고 했다. 그런 삶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처럼 잘려 나가는 삶이 될 것이다. 신앙생활은 때때로 시련이 동반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순간을 잘 극복한 후 되돌아보면 특별한 은총의 시간이었음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부활의 기쁨도 사순 시기의 참된 희생과 보속을 통해 마련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사순절, 우리 일상이 주님 말씀으로 되돌아서고, 믿음으로 다시 총망매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정출 가브리엘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학장